

죽었다 깨어나도

S#1. 준현의 집 앞 (오전 / 야외)

준현(18,남)이 신발장에 걸터앉아 신발을 신고 있다.
금방 일어나서 현관문을 여는 준현.

준현 다녀오겠습니다.
연우 (준현의 눈 앞에 발을 꿩 하고 구르며) 워!!
준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질렸다는 말투로) 레퍼토리 봐라..
연우 애가 재미를 몰라, 유머가 없어.
준현 유머타령하네 재미 없는 걸 재미 없다고 하지 그럼
연우 (듣기 싫다는 말투로) 어으~~ 말을 하질 말어 그냥.

웃고 떠들며 등교하는 연우와 준현. (sound mute)

S#2. 학교 (오전 / 실내)

교실로 들어오는 연우와 준현.
자리에 앉고 선생님이 들어온다.

선생님 오늘 수행평가 본다고 말했지? 책 집어 넣어라
학생들 네~

S#3. 학교 (오전 / 몽타주 / 실내)

몽타주 (sound mute)

수행평가를 보다가 조는 준현.
연우가 준현의 뒤통수를 쳐서 깨운다.
입모양으로 욕을 하며 화내는 준현.
깔깔 웃는 연우.
복도 반대편에서 오는 친구와 어깨가 부딪힌 연우.
준현이 웃으면서 연우의 어깨를 똑같이 친다.

(cut to)

학교에서 보드를 타며 연우 옆을 송 지나가는 학생들.
그걸 피하던 연우의 스텝이 꼬여 바닥에 넘어진다.

옆에서 비웃고 있는 준현.
넘어진 연우의 손이 까져 있다.

(cut to)

쉬는 시간, 의자를 돌려놓고 핸드폰 게임을 하는 둘.
무언가 말하는 입모양이 보이며 즐거워 보인다.

S#4. 교실 안 (오전 / 실내)

뒷문으로 들어오는 준현과 연우.
아이들이 교실 구석에 몰려 있다.
그 때 뒤를 돌아본 건욱과 눈이 마주친 연우.

건욱 야 연우 왔다!! 연우야~ 애 좀 보라
 정현이 이 새끼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하루 종일 예민하시다

깔깔대는 아이들 가운데 심기불편한 표정의 정현.

건욱 정현아~ 기분 좀 풀어라, 야 연우야 가만히 있지만 말고 조언 좀
 해줘 유경험자로서

정현 (고개를 돌려 건욱을 쳐다보며)야 씨발 말 조심해
 재랑 나랑 같냐? 저 새끼 엄마는 바람난 거라매?

정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연우.
한숨을 푹 내쉰다.
준현이 눈치를 보다가 연우를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S#5. 하룻길 (오후 / 실외)

어둑어둑 해진 동네 골목길을 나란히 걷는 둘.
어색한 정적이 흐르다 연우가 먼저 말을 꺼낸다.

연우 아까 수행 잘 봤냐?

준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뭐, 기대도 안 했어

연우 점수 얼마나 들어가는데

준현 ..개많이 들어가지... 아 나 진짜 죽을까 그냥

연우 이제 첫번째 수행인데 뭘 그렇게 까지 해

준현 몰라~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지

연우 ..불이나 함 치러 갈까

준현 야구?

연우 응. 깡~깡~ (야구치는 모션을 취하며)와~ 넘어갑니다~ 홈런~!

준현 (지루하다는 표정)야 그거 지겹다 이제. 우리 야구장 너무 많이 갔

어

연우 ..그런가

무표정의 연우.

준현이 연우 눈 앞에 손을 흔든다.

준현 야. 야! 왜이래 다음에 치면 되잖아 넌 그거 맨날 치는데 그게 재
밋냐?

연우 ..(씩소를 지으며)그래도 스트레스 풀리니까.

준현 됐어 재미없음.

연우 니가 못 쳐서 재미없는 거 아니고?

준현 뒤진다

(cut to)

준현 내일도 수행 있냐?

연우 모르겠는데

준현 역시,

연우 ...

준현 왜 말이 없냐,

연우 집 다 왔네, 잘 가라

준현 뭐야.. 그래 알았다 널 보자~

연우 ...(입꼬리만 올려 웃으며 손을 흔든다.)

S#6. 교실 (오전 / 실내)

교실 안, 준현이 초점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

옆에서 저마다 떠드는 반 학생들이 보인다.

준현에게 다가오는 몇 명의 친구들.

학생1 ..야 준현아 괜찮냐? 이게 뭘 일이야 진짜

학생2 그 장례식장은 오늘 갈 거야? 너 갈 거면 우리랑 같이..

준현 아 괜찮아. 나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가려고.

학생1 그래 진짜 괜찮지? 너무 슬프다 나도 연우 진짜 좋은 ㅇ..

준현 저기 미안한데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잘게

학생2가 학생1을 뒤쪽으로 당긴다.

학생2 아, 당연하지 쉬어~

뒤로 가는 학생들, 가면서 소곤대는 소리가 들린다.

학생2 야 미쳤냐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학생1 아니 근데 그럼 뭐라고 위로를 해 이런 적이 있어봤어야지;

S#7. 준현의 집, 방 안 (오후 / 실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현.
멍한 표정으로 책상 의자에 털썩 앉는다.

책장에서 일기장을 꺼내는 준현.
9월 11일이라고 쓰여 있는 페이지를 펼친다.
볼펜으로 일기장만 꼭 누르고 있다가 잉크가 번질 때쯤 머리를 책상에 쿡 박는
준현.
소리를 먹으면서 일기장에 머리를 대고 울고, 일기장이 눈물로 젖는다.

S#8. 준현의 방 (오전 / 실내)

마른 세수를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준현.
천천히 옷을 입고, 양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가방까지 매고 현관문을 여는 준현.

S#9. 준현의 집 앞 (오전 / 야외)

연우 (준현의 눈 앞에 발을 쿡 하고 내려치며) 워!!
준현 아아아악!!!!
연우 뭐야, 맨날 다 무시하더니 오늘은 왜 반응을 해주지?
준현 너 뭐.. 뭐야? 귀신? 아니 무슨..
연우 ..귀신취급? 이거 하려고 놀란 척 했냐?

멍하니 서 있는 준현을 두고 먼저 가 버리는 연우.
준현은 그대로 손을 들어서 자기 뺨을 짝 소리가 나게 힘껏 내려친다.

준현 아. 존나 아픈데...

교복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핸드폰을 꺼낸 준현.
핸드폰 잠금 화면에 날짜를 확인한다.

Insert. 핸드폰
화면엔 연우가 자살하기 하루 전인
2022년 9월 10일이 떠 있다.

눈물을 참는 준현, 미간을 꼭 누른다.

준현 야 같이 가!!!

연우를 쫓아가는 준현.

(cut to)

계속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걷는 준현을 보며 나란히 걷는 연우.
한숨을 푹 내쉰다.

S#10. 학교 (오전 / 교실)

교실로 들어오는 연우와 준현.
자리에 앉고 선생님이 들어온다.

선생님 오늘 수행평가 본다고 말했지? 책 집어 넣어라
학생들 네~

혼란스러움에 병 써있는 준현.

선생님 준현이 책 안 넣어?
준현 ..네? 저희 어제 수행평가 봤는데
선생님 응? 무슨 소리지 오늘 9월 10일 아냐? 6반 수행 맞는데~
연우 맞아요~ 왜 그러냐 니?
준현 이게 무슨..

뭔가 깨달은 표정의 준현.
연우를 쳐다본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준현을 바라보는 연우.

S#11. 복도 (오전 / 실내)

반대편에서 오는 친구와 어깨가 부딪힌 연우.
준현이 과민반응 하며 연우를 세게 잡는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연우.

학교에서 보드를 타며 연우 옆을 숨 지나가는 학생들.
준현이 연우 바깥쪽으로 위치를 옮긴다.

준현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 미친..

연우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준현.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 댄다.

연우 왜 이래?
준현 뭐가?
연우 몰라서 묻냐? 왜 자꾸 얼쩡거리 징그럽게.
준현 뭐래, 오늘 애들이 유독 지랄 맞잖아.

연우 똑같구만 유난 떨긴.. 어디 안 좋냐
준현 그런 거 아냐
연우 쌤답이 되고 싶은 날 뭐 그런 거야?
준현 미쳤냐
연우 아님 말고~

웃으면서 교실로 들어가는 둘.

교실이 한바탕 시끄럽다.
교실 구석에 몰려 있는 몇몇 아이들.
그 중 한 명이 뒤를 돌아 연우와 눈이 마주친다.
뒷문 앞에 멈춰선 준현과 연우.

건욱 야 연우 왔다!! 연우야~ 애 좀 봐라
 정현이 이 새끼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하루 종일 예민하시다

깔깔대는 아이들 가운데 심기불편한 표정의 정현.

건욱 정현아~ 기분 좀 풀어라, 야 연우야 가만히 있지만 말고 조언 좀
 해줘 유경험자로서
정현 (고개를 돌려 건욱을 쳐다보며)야 씨발 말 조심해
 재랑 나랑 같냐? 저 새끼 엄마는 바람난 거라매?

눈 깜짝할 새에 정현 위에 올라타 있는 준현.
연우가 비춰지고, 퍽 퍽 치는 소리가 잇달아 들린다.

S#13. 교무실 (오전 / 실내)

손을 모으고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준현, 정현, 건욱, 연우.

선생님 연우는 먼저 가 봐, 교실에서 짐 챙겨가고.
연우 (고개 숙여 인사하며) 네, 안녕히 계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교무실에서 나가는 연우를 바라보는 준현.

선생님 너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정신차려, 쌤박질이나 할 때야?특히.
 건욱이. 정현이 언제까지 이럴래? 양아치 짓 하고 다니면 재밌니?
 너네가 그럴수록 미래가 어두워 다 보여~ 선생님은 정말 도통 이
 해가 안 간다 왜 스스로 미래를 망쳐? 준현이 넌 갑자기 무슨 바
 람이 불어서 조용하던 애가,

준현 그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부모님 갖고..

선생님 뭐가 됐든 너네 다 싸잡아서 이거 아주 학폭 감이야. 넌 뭐 그렇다
 고 애를 패?

준현 하...
선생님 뭐 잘했다고 한숨은.. 하여튼 버르장머리는 누가 가르쳤는지, 쫓

말씀하시는 도중 밖에서 무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준현이 놀라 교무실 밖으로 뛰쳐나간다.

(v.o)

야!!! 야!!!!!! 너 다시 안 와!!!!

교실까지 달리는 준현.
숨을 헐떡이며 교실 문을 세게 연다.

준현 야 서연우!!

준현의 우려와는 달리 준현의 자리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연우.
연우와 눈을 마주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준현.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보니 운동부 학생들이 떨어뜨린 모래주머니들이 보인다.
곧이어 숨을 헐떡이는 건욱이 교실로 뛰어 들어온다.

건욱 헉..헉... 야 너 미쳤냐?
 니 잡아오라고 쌤이 헉..허억...

다시 문 밖으로 끌려가는 준현.
하하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연우.
준현이 나가자 연우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cut to)

옆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준현과 연우.
반성문을 쓰고 있는 준현.
창 밖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있다.

연우 준현아.
준현 ...
연우 왜 싸웠냐.
준현 ..그냥. 뭘 물어 짜증나게
연우 뭘 그냥이야.. 니 뭐 이미지 관리 한다고 싸움질 안 한다며.
 패드립 먹어도 아가리 파이팅만 하던 애가..
준현 (짜증난 말투로)아 그냥 좃같아서 그랬다고;
연우 ...
준현 왜 이래 진짜
연우 나 자살해서 그러냐?
준현 뭐라고?
연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하는 짓이 적당히 답답해야지. 나도 알아,

나 죽었잖아.
 너 지금 뭘 소리 하나?..
 준현 너도 안다고.. 그니까 유난 좀 떨지 마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해?
 연우 ...
 준현 ...괜찮냐
 연우 니가..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애초에 이게 말이, 말도 안되잖아
 연우 나도 모르겠다 뭘 일인지. 근데 꿈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신한테 예쁨 받나 보지, 하하
 준현 년 지금 웃음이 나냐? 난 존나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
 연우 좋게 생각해. 하루가 더 생긴 건데, 우린 지금 시간을 얻은 거야.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고 이거
 준현 ..모르겠다...그냥 다 구라 같애
 연우 ...지금이라도 어디 갈래? 좀 늦긴 했는데 어디 연 데도 많고.. 서울? 서울 갈래? 택시 잡으면 금방..
 연우 야 준현아, 됐어 그냥 평소대로 해라

반성문을 마무리하는 준현. 눈엔 눈물이 고여 있다.

준현 씨발.. 뭘 평소대로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연우 그냥 그렇게 하자 솔직히 뭘 해도 다 아쉽기만 할 것 같으니까
 준현 ...

S#14. 실내 야구장 (오후 / 야외)

준현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스테이크 썰러 갈까, 형 돈 개많어 지금
 연우 아 됐다고~ 아 근데 나 지금 귀신이라 돈 없으니까 야구장 돈은 그럼 니가 내라.
 준현 너는 뭘 말을 그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석에 서는 연우.
준현도 잇따라 옆 칸에 들어간다.

기계가 시작되고 말없이 계속 배트만 휘두르는 연우와 준현.
 연우는 휘두르는 족족 다 쳐내고,
 준현은 5개 중 1개 풀로 겨우 친다.

준현 ... 왜 그랬냐?
 연우 뭘
 준현 뭐 말하는 지 알잖아
 연우 뭐 왜 죽었냐고?
 준현 ...

연우 몰라 나도~ 어려워.
준현 그럼,
연우 왜
준현 그 날 내가 야구하러 갔으면.. 뭐가 바뀌었을까?

배트를 든 채로 준현 쪽을 쳐다보는 연우.

연우 뭐래..
준현 너 그 날 그렇게 들여보낸 거. 존나게 후회되더라
 친구 마지막 얘기도 못 들어준 내가 병신 같고
 내가 그 날 너랑 야구만 하러 갔어도..
연우 야.

공을 시원하게 날리는 연우.

연우 개소리야. 내가 무슨 야구에 미친놈도 아니고. 선수하던 것도 아니
 고.그걸로 죽겠냐?
준현 야구 말하는 게 아닌 거 알잖아
연우 ..알지 그럼.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고.
준현 ...
연우 너도 잡생각이 많다. 원래 그랬긴 하지만

계속해서 공을 치는 둘.
연우는 한 번도 공을 못 친 적이 없다.

준현 .. 후회는 안 하나?

그대로 벽에 부딪히는 연우 쪽 공.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연우.
다시 배트를 들고 자세를 고쳐 잡는다.

준현 안 가면 안되냐. 나 친구 없어.
 니 이려고 가면 나 박건욱이랑 다녀야 돼
연우 그건 좀 미안하네.
준현 그니까 안 가면 되잖아.
연우 되겠냐?
준현 마지막까지 알밋네

옷 소매로 눈을 비비는 준현.
눈이 빨개져 있다.
곧이어 배트를 내려놓고 미간을 누른다.

마지막 볼을 치는 연우, 준현.
연우는 볼을 놓치고, 준현은 홈런을 친다.

준현 막판 뒤집기 승리~
 연우 좋댄다. 나머지 싹 다 못 쳐놓고선
 준현 두 번 죽을래?
 연우 ..그건 좀 무섭네
 준현 아.. 웃으면 안되는데,
 연우 꺼져 진짜
 준현 야
 연우 왜
 준현 고맙다.
 연우 ...
 준현 너같은 친구가 나한테 또 어딴냐. 고마웠다고
 연우 이제 알았냐 (더 장난 치려다가 진지한 준현의 표정을 보고 당황한다)
 준현 ...그러게, 그냥 못 말하면 또 후회할 까봐 그래
 연우 미안하다.
 준현 뭘 또 미안해 해 마지막인드.. (말을 잇지 못한다)
 연우 그래 잘 살아 후회하지 말고 괜히 자책하지 말고. 언젠간 다시 만
 나겠지
 준현 ...
 연우 ..고마웠다
 준현 (연우를 안 쳐다보고)... 내일 봐

아무 대답도 없자 고개를 드는 준현.
 연우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야구장 전자시계에 12:00이 떠 있다.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는 준현.
 한참을 오열하다 집으로 돌아간다.

S#15. 준현의 집 (오전 / 실내)

눈물자국이 선명한 일기장을 한참동안 보고 있는 준현.

(cut to)

천천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는 준현.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연다.

준현 다녀오겠습니다.

활짝 열린 현관문.
 앞엔 아무도 없다.
 현관 밖으로 발을 한 발자국 내딛는 준현.

S#16. 등굣길 / 학교 (오전 / 실외)

연우가 없이 혼자 등교하고,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준현.
주변에서 사람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오늘따라 크게 들린다.
연우와 함께 있던 자리에 이젠 아무도 없다.

Fin.